
포용성장과 사회안전망 발전방안

2019. 2.

□ 출장목적

- 포용 성장을 위한 개편방안으로 검토 중인 사회보험 운영 기반 소득과악 인프라로서 영국의 RTI 시스템 도입배경, 추진경과, 운영체계에 대한 자료수집 및 인터뷰를 통해 연구수행 및 정책 수립에 활용
- 영국의 외로움 대책 등 사회적 관계망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및 협업 체계에 대한 자료수집 및 인터뷰를 통해 연구수행 및 정책수립에 활용 (고독사 예방 및 발굴 지원방안 연구 연계)

□ 연구과제

- 포용성장과 사회안전망 발전방안 연구
(기획재정부, 2018. 8 ~ 2019. 3)

□ 출장자 : 최 현 수 연구위원 [사회보장통계센터장]**□ 출장기간 : 2019. 2. 11 [월] ~ 2. 15 [금] (3박 5일)****□ 출장지역**

- 영국 London
 - CIOT(Chartered Institute of Taxation) & LITRG(Low Income Tax Reform Group)
 - Jo Cox Foundation, DCMS-Office for Civil Society, Campaign to End Loneliness

□ 주요 일정

출장일		국가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일정 및 논의사항
1일차	19.02.11(월)	영국			출국(인천-London)
2일차	19.02.12(화)	영국 London	Jo Cox Foundation	Jessie	외로움 대응 정책추진 관련 Jo Cox 위원회의 역할 및 정책 아젠다 관련 자료수집 및 주요기관 전문가 연계
2일차	19.02.12(화)	영국 London	CIOT(Chartered Institute of Taxation) & LITRG(Low Income Tax Reform Group)	Tina Riches	- 사회보험 운영 기반 소득파악 인프라로서 영국의 RTI 시스템 도입배경, 추진경과, 운영체계 사례 자료수집 및 인터뷰 -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과세 근거와 운영체계 사례에 대한 자료수집 및 인터뷰
3일차	19.02.13(수)	영국 London	DCMS, Office for Civil Society	Vanessa Lefton	외로움 대응 및 사회적 관계 강화를 위한 정책대응 추진 계획 및 2018년 10월 발표 이후 추진경과 자료수집 및 민간단체 네트워크 소개
3일차	19.02.13(수)	영국 London	Campaign to End Loneliness	Robert Hacking	생애주기별 외로움 대응 및 사회적 관계 강화를 위한 역할 및 프로그램, 정부 및 민간 협업체계, 펀드 관련 자료수집 및 인터뷰
4~5일차	19.02.14(목)	영국			- 귀국(London-인천) 19.02.15 인천 도착

가. RTI 기반 소득과약 및 사회보험 운영체계 개편 관련 주요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 상시 및 일용근로소득 신고시점과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의 시차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영국에서 실시간 소득과약을 통한 사회보험 징수 및 저소득층 소득지원 제도인 Universal Credit 중심의 개편에 따른 운영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2013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했던 RTI(Real-Time Information)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포용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소득과약 정보 연계를 강화가 필요함
 - 이는 포용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핵심 기술을 사회안전망에 활용하여 데이터 주도 혁신적 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개편사항임
- 영국 RTI PAYE System은 Universal Credit 개혁과 함께 도입된 실시간 소득과약 시스템으로 영국 국세청(HMRC)은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비정형 근로형태의 증가, 한 가지 이상의 단기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의 증가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시스템을 개편하여 RTI 시스템을 도입함
 - 이를 위해 사업주는 과거에 1개월 또는 그 이상의 주기에 따라서 연말 등 정기적인 시점에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임금지급 신고를 수행했던 반면, RTI 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월 단위를 기본으로 주기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시점 또는 지급하기

직전에 RTI 시스템을 통해서 임금과 다양한 필수 정보들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함

-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위해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제출을 확대하거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국세청 홈텍스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사업주의 종합소득 신고 및 자료 제출, 근로자 연말정산 등이 진행되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발전된 IT 기술을 기반으로 도입 가능한 시스템임
- 우리 사회에서도 기술의 활용을 통해 RTI 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이 필요한 이유는, 영국이 도입목적으로 언급한 것처럼 비정형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사회안전망의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임
- 4차 산업혁명으로 인건비 일자리 대체 및 감소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정형 근로형태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가 축적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소득 발생 중심의 과세 및 사회보험료 부과, 징수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실시간 소득과약 정보 구축 및 연계 시스템(Real-time Information for PAYE(Pay As You Earn))은 을 국세청 홈텍스를 확장하여 구축하고 소득 중심 사회보험 패러다임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소득과약과 사회보험료 징수 주체를 각 사회보험공단에서 국세청으로 통합 이관하는 징수 패러다임 전환을 검토할 수도 있음
- 이것은 근로장려세제 도입과 더불어 추진된 바 있는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 국세청 이관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근로장려세제 등과 연계한 소득과약 정보를 기반으로 사회보험 가입 및 사회보험료 부과와 징수, 사회보험료의

지원사업 운영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안임

- 이를 통해,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등 기존의 사회안전망 운영체계의 혁신적 재구조화에 기여하고, RTI 시스템을 기반으로 소득 파악을 강화하여 정부 및 모든 공공영역에서 실시간 소득파악 데이터 연계 및 활용 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해소뿐만 아니라 행복e음 등 자산조사 기반 복지 정책에 여전히 존재하는 근로소득 파악도 동시에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사회안전망 운영의 정확성 및 포용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근로자 제외 기준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저소득 근로자 및 이들을 고용한 영세 자영업자 대상으로 RTI 시스템을 기반으로 부과되는 보험료 환급방식을 통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방식으로 운영 패러다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그리고 보험료 지원수준의 확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신규 부담하게 되는 사회보험료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기대효과 및 편익 관련 세부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 문제와 보험료 부담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임
- 특히, 사회보험 가입대상 확대 과정에 불안정 근로 형태에 대한 적용 기준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근로일수 및 시간 등 근로자 제외 기준을 폐지하는 동시에 이들에 대해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로 발생하는 신규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혁신적으로 개편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요컨대,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의 혁신적 개편을 위해, 사회보험법 상 근로자 적용기준 개정과 더불어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의 근본 원리에 충실하도록 소득세와 동일하게 소득 발생 중심으로 사회보험 가입자격을 적용하고, RTI 시스

템을 기반으로 기존의 일용근로뿐만 아니라 비정형 플랫폼 노동에 대한 임금 또는 소득 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는 것임

- 근로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지원 운영체계 개편과 연계 하여 플랫폼 노동자들도 사회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하면서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어떤 근로자든지 사업주 또는 플랫폼 관리 기업에서 실시간 신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것은 포용 성장과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리의 사회안전망이 지닌 복잡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사각지대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사회보험 등 복지정책의 혁신적인 운영 패러다임 개편방안의 하나임

나. 영국의 외로움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 Jo Cox 위원회의 역할 및 영국의 외로움 대응을 위한 사회적 관계 강화 정책 추진배경 및 경과 >

- Jo Cox 외로움대책위원회 (Jo Cox Commission on Loneliness)
 - 2016년 6월 브렉시트 반대 캠페인 도중 피살된 노동당 하원의원 Jo Cox의 죽음 이후, 그녀가 열정적으로 관여하던 '외로움' 문제를 Jo Cox 재단에서 이어나갔음
 - Jo Cox와 함께 위원회를 만들었던 Seema Kennedy, Rachel Reeves 하원의원 주도로, Jo Cox 외로움대책위원회는 2017년 13개 비영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보고서 「Combating loneliness one conversation at a time」를 2017년말 발표하였으며, 생애주기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외로움에 대한 측정과 대책을 강조함
- 영국 정부는 '외로움'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cross-government approach)을 주도할 책임 장관 (Minister for loneliness)으로 Tracey Crouch를 임명
 - Jo Cox 외로움대책위원회(Jo Cox Commission on Loneliness)가 주도한 연구의 정책제언에 따라, 외로움 해결을 위한 '책임 장관'에 스포츠와 시민사회부(Minister for Sport and Civil Society) 장관 Tracey Crouch을 2018년 1월 18일 임명함
- 그 후 범정부 종합계획 「A connected society: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 - laying the foundations for change」을 2018년 10월 15일 발표함

< 외로움 대응과 사회적 관계망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

□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 외로움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긴급한 공공보건의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게 되었음
 - － 외로움은 흡연 또는 비만과 같은 수준으로 이른 죽음(early death), 심혈관 질환, 우울, 인지저하, 알츠하이머 발병과 관계가 있으며, 5~18%의 영국 성인들이 항상 또는 자주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추정됨
- 정부의 비전은 국가 전체를 개인들이 더 강력한 사회적 관계망을 가질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며, 특히 외로움의 위험이 커지는 취약한 시기에 가족, 친구, 지역사회가 서로 지지할 수 있도록, 튼튼한 사회적 관계망을 가지도록 하는 것임
 - － 기관들이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인간적 요소를 소중하게 여기고, 외로움이 낙인이나 수치심 없이 이해되어,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국가를 지향함
 - － 이러한 국가가 되기 위해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며, 정부 홀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으며, 더욱 사회적으로 연결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강력한 비전을 제시함
- 종합계획은 정부와 사회가 전반적으로 외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전환점을 제시함
 - － 이것은 2017년 Jo Cox 외로움대책위원회에 모인 많은 기관과 개인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하며, '외로움과 사회적 관계망(social connections)의 중요성'에 대하여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첫 번째 계획임
 - － 이는 더욱 통합적이고(cohesive), 연결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장기적인 비전의 출발이며, 사회 전반에서 외로움이 극대화되는 특정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몇 가지 대책들을 포함하고 있음
- 종합계획은 사회 변화에 저항하거나 과거로 회귀하려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

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지지적인 사회적 관계를 설계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지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공공, 민간, 비영리 영역들을 기반으로 하여, 기반 시설과 문화에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 살펴봄

-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세계 최초로 다양한 외로움에 대응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기 위한 책임 장관직을 2018년 임명함으로써 ‘외로움’이라는 이슈와 정책적 의제를 선도하게 됨
 - 이러한 책임 장관직 임명은 전 세계적 관심을 받았으며, 외로움이 생애주기별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현대사회에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임을 제시함
- 2018년 1월, 총리는 ‘Jo Cox 외로움대책위원회’의 작업을 바탕으로, 정부에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제언들을 시행하도록 위임하였음
 - 2018년 6월, 총리는 2천만 파운드의 예산을 발표하였고, 이 중, 1천 5백만 파운드는 Building Connections Fund로 비영리, 지역사회, 기부 기관들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
 - 이는 정부가 시민 사회 번영을 위해 수립한 또 다른 종합계획인, ‘Civil Society Strategy’의 큰 비전을 보완하는 것이기도 함
- 그 이후로, 영국 총리는 고령화 사회의 도전(Ageing Society Grand Challenge)을 정부의 산업 계획 중 일부로 발표하였으며, NHS의 장기적인 계획의 새로운 관점으로 ‘건강 악화에 대한 예방’을 발표함
 - 정부의 ‘외로움’에 대한 대책은 이러한 두 가지 정책에도 기여할 것임

□ 종합계획의 수립

- 종합계획은 Jo Cox 외로움대책위원회의 연구를 기반으로 넓은 범위의 파트너 기관들이 참여하였으며, 2018년 6월22일부터 7월20일까지 정부가 다양한 실증적 ‘근거’를 요청하였을 때(Call for evidence), 400개 이상의 응답을 받음
- 정부는 자선기관, 사업체, 공공영역 지도자를 포함한 40개 이상의 그룹과 협

력한 외로움행동그룹(Loneliness Action Group)과 긴밀하게 작업하였으며, 종합계획을 알리고 외로움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

- 자선기관, 연구기관, 지자체, 보건 의료 기관, 사업체, 종교 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하여 전문적이고 통찰력 있는 의견들을 공유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참여하였음

□ 종합계획의 주요 원칙

- 파트너십과 협력 :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시민사회와 다양한 민간 영역 등이 협력하고, 정부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외로움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모두가 협력해야 함
- 실험, 반복, 학습 의지 : 종합계획을 추진하면서 실증적 근거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험과 반복 과정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
- 부처 간 교류 및 연계, 접근성 보장 : 외로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는데 중요함
- 중요한 위기 상황에 집중 : 사람들이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특정한 위기 상황과 지점에 집중함
 - 특정한 위기 상황에 대한 근거는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지역 사회 생활 조사(Community Life Survey) 데이터 분석을 통해 파악
- 개인화된 접근과 지역사회 중심 대책의 중요성
 - 외로움이 매우 복잡하고 주관적이라는 특징을 고려해보면, 개인화되고 지역사회 중심의 해결방안 마련은 매우 핵심적임

□ 종합계획의 공간적 범위

- 종합계획은 잉글랜드 지역에 한정되나,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 동료와도 협력하고 있으며, 잉글랜드 범위를 넘어서는 지역의 정책 역시 참고함

□ 주체별 역할 : 정부, 지역사회 그리고 개인의 역할

- 외로움을 해결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지지하기 위해 모두가 행동을 취해야 하고, 외로움을 각 업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지닌 정부, 지방정부, 기업, 그리고 자원봉사 영역을 포함하며,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와 가족, 개인의 책임도 중요함

○ 중앙정부

- 중앙정부는 외로움 대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건강한 사회적 웰빙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캠페인을 통해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와 정보를 개발함
- Loneliness Action Group과 긴밀하게 행동하고, 멤버들이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도록 보장함
- 정부는 정책 입안을 통해 변화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여, 각 주체가 외로움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함

○ 지방정부

- 지역사회의 웰빙에 대해 의사결정과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어떻게 외로움을 해결할지 고민할 것을 요구함
- 지역사회에서 Health and Wellbeing board와 다른 기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공간과 교통을 둘러싼 실용적 문제를 해결하고, 외로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보건 및 공공 서비스 기관(Health and other public services)

- 사람들의 사회적 웰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어떻게 그들을 찾아내고,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더 잘 지지하기 위한 방법을 탐색함
-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실천방법에 대해 경험을 공유하고 실천함

○ 기업을 포함한 모든 고용주

- 직원들이 직장 내의 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적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지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외에도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

간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

○ 자원봉사 영역

- 자원봉사 영역에서는 이미 외로움을 해결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강하고, 통합된 지역사회를 창조하고, 개인과 집단을 소외시키는 장애물에 도전할 수 있음
- 서비스의 전달을 통해서, 개인과 지역사회가 외로움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스킬과 지식을 갖추도록 할 수 있음
- 외로움의 도전에 대한 가장 효과적 정답은 가족, 친구, 종교 집단과 지역사회가 서로를 포함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에 열려있도록 하는 것임
- 개인들은 지역사회에 자원봉사를 통해 더욱 연결되도록 할 수 있으며, 그들은 친구들과 가족, 이웃들을 돌보고 연계할 수 있음.
- 지역사회는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을 포함하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기회를 만들어 회복력을 길러주고, 사람들을 연결시키는데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정부 역할의 핵심 (The focus of government's work)

- 외로움과 사회적 관계는 매우 사적인 것으로, 모두가 가끔씩 외로움을 느끼지만, 사람들이 항상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건강의 악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과 함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함
 - 종합계획은 '항상' 또는 '대부분의 시간'동안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예방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춤
-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3가지 목적과 연계됨
 - (1) 외로움에 대한 근거 기반을 마련
(Building the evidence base on loneliness)
 - '근거 기반(evidence base)'를 통해, 무엇이 외로움을 야기하는지, 외로움의 영향과 무엇이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고자 하며, 종합계획은 기존에 제시된 근거를 평가함(assessment)
 -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은 현재 외로움을 측정할 수 있는 수치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여, 어떻게 활용되는지,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파악함
 - 통계청은 "얼마나 자주 외로우십니까?('How often do you feel lonely?')라는 하나의 질문과 UCLA의 3개의 성인을 위한 문항을 제안하였으며, 아동을 위한 지표는 별도 개발하여, 2018년 말 발표. 또한 데이터의 연계를 위해 정부는 서비스 공급자가 해당 문항을 활용하여 외로움을 측정하도록 장려
 - 웰빙에 대한 국책연구소(What Works Centre for Wellbeing)의 외로움 해결방안을 위한 개입에 대한 리뷰를 제공함. 연구소는 선행연구와 발간되지 않은 자료를 통해, 영국과 세계의 '외로움에 초점을 맞춘 개입방법'을 찾았으며, 이에 대다수 연구들이 55세 이상 인구의 외로움에 초점을 맞췄으며, 각 연령대별로 무엇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강력한 근거가 필요함을 강조함
 - 정부는 연구소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계획을 바탕으로 한 정책의 세부사항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효과적인 평가 방법을 개발할 것임.
 - (2) 사회적 관계와 외로움이 정책 결정과정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도록 정부가 지속 가능한 전환을 이끌어내도록 함

(Driving a lasting shift in policy-making)

- ‘외로움’을 악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범위의 요인들을 파악하고 여러 정부 정책에서 고려할 수 있게 하여, 사람들의 사회적 웰빙과 회복력을 지지할 수 있게 함
 - 종합계획은 인생의 특정 위기 지점(trigger points)에서 높아지는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개입을 포함해, 사회 전반에 편익을 제공하는 새로운 정책을 포함함
 - 다양한 정책 결정분야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고려할 수 있는지 포함함
- (3) 외로움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논의를 촉진시킴

(Catalyzing a national conversation on loneliness)

- 외로움의 영향에 대해 인식을 높이고, 낙인을 해결하기 위해 ‘외로움’에 대해 국가적 대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체적인 건강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정신건강도 점점 더 그러하듯이, 우리는 사회적 연결망(social connections)을 돌보며, 그것이 우리의 웰빙에 중요함을 이해함
 - Jo Cox 위원회에 의해 수행된 중요한 작업을 기반으로, 어떻게 정부가 다른 주체들과 사회적 변화를 모색할지 제시함
- 종합계획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정부가 지방정부, 기업, 보건·공공서비스, 자원봉사 영역, 그리고 지역사회와 개인들이 사회적 연결망 강화를 지원하도록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정부는 이러한 종합계획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외로움을 줄이고, 더 연결된 사회를 지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향을 위해 정부가 다른 주체들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함
- 종합계획은 새로운 측정도구와 무엇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로움이 확산되는 현상에 대해 분명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부의 약속을 제시함

□ 외로움 대책의 평가 : 성공의 측정

-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 접근의 성공은 정부의 '외로움 척도'에 의해 결과적으로 측정될 것이며, 외로움 현상의 감소를 추진할 것임
- 하지만 단기적 관점에서, 외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연령대 및 집단별로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외로움 해결을 위한 효과적 방법,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각 목표에 대해 측정도구를 만들었으며, 매년 이 목표의 진행상황에 대해 연간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임
 - － 이 계획을 수행하는 정책의 실행에 대한 업데이트와 추가적 정책의 개발이 담긴 연간 진행 보고서 (annual progress report)를 발간할 예정임
- 이와 더불어 각 부처들은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정책들이 모니터링 되고, 성공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척도를 개발할 예정임